

## 제 42 호 시험 결과 평가기

시험지를 되돌려주면서 교수님께서서는 시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하게 됩니다.

코멘트 1: “시험 평균 점수는 67점입니다. 썩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학생들 대다수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코멘트 2: “이번 시험 평균 점수는 형편없어요. XX에 대해서 수업할 때 학생들 정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세 번째 문제는 질문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시험에도 수준 미달이면 이 수업 패스하기 어려울 걸요.”

코멘트 3: “아니, 이것도 시험이라고 봤나? 어쩜 이토록 못하는가. 도대체 뭘 생각했기에 세 번째 문제는 깡그리 다 틀렸지? 학생들, 학교에 놀러 왔나? 이래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위 코멘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에서 거품 나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셋 다 성적이 좋지 않은 탓을 100% 학생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이유는 학생들이 잘 못 배웠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했는데...)”가 꾸지람의 포인트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의심하다가도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한바탕 야단치고 나면 역시 그들의 잘못이라는 결론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꾸지람을 맹렬하게 할수록 시험지 채점하던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빨리 내려가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아마 시험지 되돌려줄 때 잔소리 참기가 운전할 때 욕 참기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없었다면 과연 가르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치는데 못 배울 수가 있나요. 시험에 나타난 학생의 평균 학습 목표 달성도가 부진하였다면 그 책임은 반까지는 아니라도 삼분의 일 정도는 교수님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단치는 대신 칠판에 격언 하나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실패와 실패자는 다르다. 실패는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 글을 쓰면 교실 여기 저기에서 긴장감과 뒤범벅된 묘한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쁘면 저런 '격려'의 말씀을 다 하실까.”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학생들의 불안한 웃음소리가 가라앉으면 설명을 덧붙입니다. “성공도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에게 충고하는 말로 변해버립니다. 점수 잘 받아 우쭐대던 학생들을 겸손하게 만들지요.

시험지 돌려 줄 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분발하도록 격려해주는 일이며, 시험 잘 본 학생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일입니다. 교수님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됩니다.

© 조벽, 1999